"한국 전쟁, 곧 끝날 수도"...CNN, 한반도 종전 가능성 조명

머니투데이 | 박가영 기자

2021.12.31 07:0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23106081030412&type=1 기사주소 복사

> 정의용 장관, 종전 선언 문안 "美와 합의된 상태" 발언 주목 한국 전쟁 과정 및 향후 전망 보도

정의용 외교부 장관/사진=뉴시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종전선언 문안에 대해 한미 양국 간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밝힌 것에 대해 미국 언론도 주목하고 있다.

CNN은 30일(현지시간) '한국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곧 끝날 수도'(The Korean War is not over, but it might soon be)'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정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한국 전쟁의 역사와 향후 전망 등을 짚었다.

CNN은 기사에서 정 장관이 한국시간으로 지난 29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간 종전선언 문안 협의와 관련해 "이미 사실상 합의가 돼 있는 상태"라고 언급한 대목에 주목했다.

CNN은 1950년 6월25일 북한군 13만5000명으로 추산되는 북한군이 한반도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38선을 넘으면서 한국 전쟁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련과 중공군이 지원한 북한군과 미국 주도 유엔군이 남한군을 지원하면서 현재의 군사분계선을 두고 교착 상태를 이어갔다고 소개했다.

1951년 휴전회담이 시작됐으며 1953년 7월27일에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CNN은 "어떤 사람들은 1953년에 이미 종전된 것 아니냐고 물을 수 있다. 그러나 1953년 7월27일 적대행위를 종식하기로 한 합의서에 서명한 사람들은 한반도에 주둔한 유엔군사령관과 북한군 및 중국군 사령관이었다. 한국은 서명국이 아니며, 이 협정에는 평화조약이 아니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전 선언 서문에는 "양측 모두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반도 충돌을 멈추고 최종적인 평화적 해결이 이뤄질 때까지 모든 적대행위와 군사행동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을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규정돼 있다.

CNN은 정전 협정 이후 1971년까지 남북의 공식적인 접촉이 없다가 1991년 남북이 남북기본합의서에 서명하면서 긴장이 완화되기 시작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시작과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 남한의 정치적 혼란 등으로 인해 새로운 긴장이 고조됐다고 덧붙였다.

2018년 4월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남북공동성언인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2000년 6월 1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지만 2002년 북한이 핵무기를 추구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이 결렬됐다. 이후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간 6자 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 협상이 이어졌지만, 북한이 2009년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면서 이 같은 노력이 추진력을 잃었다.

이어 2007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평양에서 만나면서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보수 성향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 강경 노선으로 전환해 평화 노력을 냉각시켰다고 CNN은 평가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만남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으로 돌파구가 마련되는 듯했으나, 북한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그 이후 노력은 중단됐다는 게 CNN의 설명이다.

CNN은 한미 외교관들이 어떤 합의를 하든 각국 정부 내에서 승인이 필요하고, 북한과 중국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며 그 의미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낙관할 여지가 있다"며 그 근거로 정 장관이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서 북한은 일련의 신속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고 밝힌 점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종전 선언을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언급한 것을 꼽았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